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3권 2호, 2007, 한국보육지원학회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3, No. 2, 2007, pp.22-47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미혼 성인의 자녀양육신념 양상과 자녀에 대한 가치 및 부모 부양의무감간의 관계

A Study on Parental Beliefs, Value of Children and Filial  
 Obligation of the unmarried

조복희(Cho, Bok Hee)\*, 정민자(Jung, Min Ja)\*\*, 김연하(Kim, Yeon Ha)\*\*\*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미혼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신념의 양상과 자녀에 대한 가치, 부모 부양의무감을 살펴보았다. 남녀 대학생 748명(남학생 323명, 여학생 425명)을 대상으로 조운주(2002)가 사용한 부모 부양의무감, 세계 8개국에서 동시에 사용된 자녀에 대한 가치(Value of Children) 설문지(1975, 2001)를 실시하였고, 자녀양육신념에 대한 응답자의 가치를 기술하게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혼 성인의 자녀양육신념 양상을 조사한 결과, 성, 연령, 출생순위, 조부모 동거여부 등에 상관없이 관계지향적 자녀양육신념(46.0%)보다 개인지향적 자녀양육신념(54.0%)을 지닌 미혼 성인의 비율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정서적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도구적 가치를, 자녀양육부담감을 가장 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미혼 성인들은 자녀를 갖는 가치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나 양육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애정적, 정서적 가치를 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보다는 남자가,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와의 접촉빈도가 2개월에 1회 이상 많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 부양의무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지향적 자녀양육신념을 지니고 있을수록 정서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 부양의무감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미래 부모세대들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주고, 미혼 성인 대상의 예비 부모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자녀양육신념, 자녀에 대한 가치, 부모 부양의무감

\*제1저자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 전공 교수

\*\*공동저자(교신저자) : 한국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qjmj@hanmail.net

\*\*\* 공동저자 :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박사

## I. 서 론

부모자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보편적이며 영구적인 관계로 개인의 발달과 사회화의 기본교육의 장인 가정환경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적인 환경이다. 그런데 가족은 사회 문화라는 보다 큰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신념은 부모가 속한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여 형성된다. 즉 사회마다 다른 가치관을 강조하거나, 사회의 변천으로 인해 가족 구조나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이상적인, 또는 바람직한 개념이 다르다면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에 대해 문화적으로 규정된 바람직한 특성을 발달시키도록 노력함에 따라 부모의 양육신념과 목표도 변화하게 된다(Goodnow & Collins, 1991).

최근의 비교심리학의 제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양문화를 집합주의(collectivism),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서양문화를 개인주의(individualism), 독립성(independence)으로 구분하여 양 문화간의 뚜렷한 의식의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받아들여 아동발달의 원리도 이 가설하에서 부모의 양육신념에 따른 아동의 사회화를 설명하고 있다. 많은 서구 사회의 부모들은 독립심, 자기의존(self-reliance), 그리고 개인의 성취를 격려하는 것을 중시하는 신념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 라틴계 미국인 문화에서는 상호의존성, 협동, 그리고 협력을 중요한 신념으로 지니고 있다(Harrison, Wilson, Pine, Chan, & Buriel, 1990; Triandis, 1995; 이완정, 현온강, 1997).

부모의 양육신념에는 다양한 개념이 있을 수 있다. 자녀양육시 중요시하는 가치관이나 기대, 자녀교육의 목표가 추상적 개념이라면 학교생활에서의 성취기대, 성인이 되었을 때 기대하는 직종 등은 구체적 양육신념일 것이다. 국가 내에서 또는 국가간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신념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양육신념과 아동발달에 대한 암시적 이론을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Goodnow & Collins, 1991; Bornstein, 1991), 즉 자녀들에게 발달시키기를 원하는 목표나 가치 등 추상적 양육신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으며(Pomerleau, Malcuit, & Sabatier, 1991), 부모가 자녀들의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자녀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 등 구체적 양육신념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cGillicuddy-DeLisi & Subramanian, 1991).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가 어떠한 기술과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자녀가 독립성이 발달하도록 지도하기를 원하는지, 동조성이 발달하도록 지도하기를 원하는지를 비교문화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는, 미국인 부모들은 자녀의 독립성을 발달시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미국에 이민 온 부모들(캄보디아인, 필리핀인, 베트남인, 멕시코인 등)은 동조성을 발달시키는 것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 출신의 부모들은 학문적 내용의 교육보다 사회성 교육에 더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Okagaki & Sternberg, 1993). 푸에르토리코의 어머니와 유럽계 미국인 어머니간의 어린 자녀에 대한 신념과 목표를 비교한 Harwood(1992)의 연구는 목표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류 계층에 속한 푸에르토리코 어머니들과 비교해서 중류와 하류계층의 유럽계 미국인 어머니들은 개인지향적인 발달(자신감, 독립심, 재능과 능력의 계발 등)과 자기통제력(탐욕, 공격성 또는 이기심으로부터 자신을 제한시키는 능력 등)과 관련된 사회화 목표에 초점을 둔 반면에 푸에르토리코의 어머니들은 공손함, 존중(예의바름, 순종 등)과 사랑(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등)을 양육목표로 두고 있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의 어머니와 미국의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어머니들은 유아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나,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순종을 강조하고 독립성을 격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1995). 일본과 우리나라 유치원 부모들의 신념을 비교 연구(임정미·이명조, 2000)에서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주적이며 자발적인 자녀를 원하는 반면에, 일본의 부모들은 남을 배려하는 점에 가치를 두고 순응적인 자녀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은 동조성보다는 독립성이 발달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보다 중요시하고, 학업을 중시하는 양육신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기교육현상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안지영, 2003).

사회변화에 따른 세대간의 양육신념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결과, 우리나라 할머니 세대의 경우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 반면에, 영아,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 세대에서는 독립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이 높게 나타나되,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은 높거나 낮은 경우가 모두 많이 나타나므로써 세대간의 차이를 보였다(이완정, 현운강, 1997). 이처럼 자녀양육신념은 문화집단에 따라,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개인과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문화적 지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신념과 함께 자녀에 대한 가치 또한 문화적 배경과 사회 변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자녀에 대한 가치연구는 인구 증가나 출산동기에 대한 설명을 가

능하게 해주고, 가족간의 상호작용이나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가 VOC(Value of Children) 연구로(Arnold, Bulatao, Buripakdi, Chung, Fawcett, Iritani, Lee, & Wu, 1975, 1994, 2001), VOC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가치를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가치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경제적 가치는 아이가 어렸을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서 기대되는 물질적 이익과 비용을 의미한다. 즉 어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성숙한 자녀의 늙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사회적 가치는 아이를 가짐으로써 얻게 되리라 기대되는 이익과 불이익을 뜻하는데 기혼 부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의 사회적 승인과 사회적 지위, 아들을 낳음으로써의 가계 계승 등이 속한다. 셋째, 심리적 가치에는 행복, 즐거움, 혹은 자녀에 대한 기대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불편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세 유형간의 세분화를 통해 사회문화적 맥락과 출산 간에 기대되는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증한 결과, 보다 발전된 지역이나 도시지역에 비하여 저개발 지역이나 농촌지역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더 많이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용민, 2003 재인용).

미혼 성인을 대상으로 미래의 자신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성들에게는 아버지가 되려는 도구적인 동기가 있는데 남성들에게 있어서의 아버지됨은 성인 남성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반면에 여성이 어머니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자녀출산과 양육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직접적 기회비용보다는 사회에서 규정한 여성의 역할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Lupton & Barcaly, 1997). 부모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동기로는 영속성 추구, 출산과정의 경험, 애정과 인생의 충만한 의미의 경험, 자신의 아동기에 대한 기억 및 재경험, 노후보장, 파트너와의 유대감, 양육을 통한 역할수행, 자극과 자부심 획득, 개인적 성장의 기회,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애정을 받으려는 욕구, 실용주의의 규범적 행동, 재미 등을 들 수 있고, 부정적 동기로는 사회적, 개인적 제약,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회의, 장애아를 낳을 가능성, 비관적인 세계관, 재정적 문제, 자녀양육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 임신의 불편함, 인구문제에 대한 우려, 정서적 미숙, 교육 및 직업상의 제약 등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 또한 사회문화적 가치와 변화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동양문화권에서 중시하는 상호의존성, 집합주의의 가치체계로 이해할 때 상호의존성, 동조성을 중시하는 자녀양육신념을 지닐수록, 심리적 자녀에 대한 가치를 지향할수록 부모에 대한 공격, 부모 부양의무감도 높게 지니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명

확하고 포괄적으로 규명하지 못하였다.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양의무감의 차이 또는 부양의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애정과 부양의무감간의 관계 등을 주로 다루었고,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들은 탐색적 조사 수준에 그친 연구가 많았는데,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에 대한 태도나 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살펴보거나, 성별, 출생순위, 결혼상태 등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위주로 부양의식과의 관계를 파악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김송애, 1991; 이은경, 1999; Cicirelli, 2000). 또한 세대간 유대를 중심으로 수행한 연구들은 현재 부양중인 상태를 바탕으로 정서적 관계와 의무감의 정도에 따라 현재의 부양경향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였을 뿐 정서적 유대감이 장래의 부양의무감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조운주, 2002, 재인용), 더구나 미혼 세대를 대상으로 부양의무감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태이다.

현재의 2, 30대 전반의 대학생들은 노인세대나 중장년 세대와는 달리 물질적 풍요 속에서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란 세대로 핵가족화된 가정에서 사회화되어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합리적·평등주의적인 태도를 지닌 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효의 전통이 퇴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2, 30대 미혼성인 세대의 부모자녀관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초기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녀양육신념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자녀에 대한 가치와 부모 부양의무감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특성을 감안한 올바른 부모신념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부모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성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성인의 자녀양육신념의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성, 출생순위, 부모 동거여부, 부모 접촉빈도, 조부모 동거경험여부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 부모 부양의무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자녀양육신념과 자녀에 대한 가치, 부모 부양의무감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남녀공학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748명(남학생 323명, 여학생 425명)으로 부모님 중 적어도 한 분 이상이 생존해 있

는 응답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미혼 성인 중 연구대상을 대학생으로 제한한 이유는 동일한 연령대의 인구 중 직종과 학력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 구성은 남학생이 43.3%, 여학생이 56.7%였다. 이들의 연령은 만18세에서 29세까지로 평균은 남학생의 경우 22.4세, 여학생의 경우 21.4세였다. 전체적으로 20~30대 미만이 82.0%로 가장 많았고, 20대 미만 17.0%, 30대 이상이 1.0%였다. 출생순위는 장남·장녀인 경우가 전체의 47.8%였고, 차남·차녀인 경우가 43.7%, 외동아들·딸인 경우가 8.5%를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부모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분포는 50대가 6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 이하 28.1%, 60대 이상 4.9%를 차지하였고, 어머니의 연령분포는 40대 이하가 5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43.9%, 60대 이상 1.4%의 분포를 보였다. 부모의 생존 여부는 두 분이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가 93.1%로 대부분이었으며,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62.8%,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37.2%였고, 조부모와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가 44.3%, 동거경험이 없는 경우가 55.7%였다.

## 2. 측정도구

### 1) 자녀양육신념

미혼 성인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신념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만약에 자녀를 낳는다면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를 자유응답식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 2) 자녀에 대한 가치

자녀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VOC(Value of Children Study)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Trommsdorff, 2001; Arnold et al., 1975) 중의 일부분항을 사용하였다. '자녀가 있으면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 '자녀를 가지면 부부는 더 가깝게 된다' 등 자녀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및 정서적 가치에 대한 문항으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이유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문항 검토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응답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19문항을 선정하여 주성분분석을 사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각 요인명을 정서적 가치, 도구적 가치, 자녀양육부담감으로 명명하였다.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계수는 정서적 가치 .82, 도구적 가치 .70, 자녀양육부담감 .77로 산출되었다.

### 3) 부모 부양의무감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운주(2002)가 사용한 부양의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Seelbach와 Sauer(1977)의 'Filial Obligation Scale'의 일부 문항을 번안한 것으로 '자식은 언제든지 기꺼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결혼한 자식은 부모님 가까이 살아야 한다', '자식은 부모님의 기념일을 챙겨야 한다'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평정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의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4였다.

## 3. 연구절차

###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7년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각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학 전공 2인에게 전문가 집단 타당성을 검증받았고, 5명의 아동학 전공 석사과정생이 각각 1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 2) 본조사

본조사는 서울에 소재하는 남녀공학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07년 5월 1일부터 약 3주간 실시되었다. 각 대학교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회수율 83.2%).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1.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요인분석과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고, 각 독립변인에 따른 종속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chi^2$  검증, t-test, ANOVA, 상관관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자녀양육신념의 양상

우리나라 미혼 성인의 자녀양육신념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에 자신의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우고 싶은지를 질문한 결과 매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를 유사한 내용으로 묶어 총 22개의 반응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순서대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6.7%)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똑똑한 사람(6.4%), 예의바른 사람(5.9%), 독립적인 사람(5.3%), 사랑을 받고 줄 수 있는 사람(5.3%)이 5% 이상의 분포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착한 사람(4.1%), 성실한 사람(4.1%),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4.0%)이 4% 정도의 반응을 차지하였고, 이외에도 자립심이 강한 사람(3.7%), 남을 배려하는 사람(3.1%), 책임감 있는 사람(2.4%), 정직한 사람(2.4%), 자신감 있는 사람(2.0%), 훌륭한 사람(1.9%),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사는 사람(1.6%) 등의 순위를 보였다. 기타 반응(35.2%)으로는 나같은 사람, 건강한 사람, 귀여운 아이, 멋진 사람 등의 응답이 있었고, 미스코리아, 의사, 판사,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음악가, 엔터테이너 등 특정직업이나 직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응들을 분석해 보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응답(의사, 한의사, 판사,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미스코리아, 예술가 등 특정직업인 등)보다는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이상적인 응답,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반응(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사랑을 받고 줄 수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자신감있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등)이 많았고, 공동체 의식, 집단주의적인 사고를 반영하는 응답(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등)보다는 개인주의적 사고를 반영하는 응답(주관이 뚜렷한 사람, 독립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사회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응답(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등)이 가족중심주의적 사고를 반영하는 응답(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효도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고, 특히 효도, 웃어른 공경 등 전통적인 가치관을 반영하는 응답(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가족과 친밀한 사람)은 4.3%에 불과함으로써 미혼 성인 세대가 지닌 가치관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표 1>  
 자녀양육신념 전체 응답분포(N=748)

순위	응답 항목	N	비율(%)
1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50	6.7
2	똑똑한 사람(총명한 사람)	48	6.4
3	예의바른 사람	44	5.9
4	독립적인 사람	40	5.3
5	사랑받고 줄 수 있는 사람	40	5.3
6	착한 사람	31	4.1
7	성실한 사람	31	4.1
8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효도)	30	4.0
9	자립심이 강한 사람	28	3.7
10	남을 배려하는 사람	23	3.1
11	책임감있는 사람	18	2.4
12	정직한 사람	18	2.4
13	자신감있는 사람	15	2.0
14	훌륭한 사람	14	1.9
15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사는 사람	12	1.6
16	주관이 뚜렷한 사람	11	1.5
17	행복한 사람	10	1.3
18	지혜로운 사람	7	0.9
19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6	0.8
20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4	0.6
21	돈 많이 버는 사람	3	0.4
22	가족과 친밀한 사람	2	0.3
	기 타 (무응답 포함)	263	35.2
	전 체	748	100.0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결과(Shwalb, Kawai, Shoji, & Tsunetsugu, 1997; LeVine, 1988; Pomerleau, Malcuit, & Sabatier, 1991)를 참고로 하여 기타 응답을 제외한 반응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미혼 성인의 자녀양육신념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크게는 관계지향적 자녀양육신념과 개인지향적 자녀양육신념으로 범주화하였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관계지향적 자녀양육신념을 사회적 관계지향과 가족내 관계지향으로, 개인지향적 자녀양육신념을 독립·자율지향, 인지지향, 행복지향 자녀양육신념으로 각각 분류하였다(<표 2> 참조).

&lt;표 2&gt; 자녀양육신념 범주화에 따른 일반적인 분포경향(N=485)

		응답의 예	N	%
관계지향적 자녀양육 신념	사회적 관계지향	대인관계가 좋은 자녀 사회에 도움을 주는 자녀 예의바른 사람 책임감있는 사람	198	40.8
	가족내 관계지향	남을 배려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가족과 친밀한 자녀		
			223	46.0
개인지향적 자녀양육 신념	독립·자율지향	주관이 뚜렷한 자녀 독립적인 자녀 자립심이 강한 자녀 자기주장이 강한 자녀 똑똑한 자녀	105	21.7
	인지지향	총명한 자녀 공부를 잘 하는 자녀		
	행복지향	행복한 자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자녀	102	21.0
			262	54.0
전 체			485	100.0

자녀양육신념 분류에 따른 일반적인 분포경향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듯이 관계지향적 자녀양육신념 46.0%, 개인지향적 자녀양육신념 54.0%로 관계지향적 자녀양육신념보다는 개인지향적 자녀양육신념을 지닌 미혼성인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 관계지향이 4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독립·자율지향 21.7%, 행복지향 21.0%, 인지지향 11.3%, 가족내 관계지향 5.2% 순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가족내 관계지향을 지닌 자녀양육신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3&gt; 성·출생순위·조부모 동거경험유무에 따른 자녀양육신념의 차이 (N=485)

		관계지향	개인지향	계	
성별	남 자	87(46.3)	101(53.7)	188(100.0)	$\chi^2=0.01$ df=1
	여 자	136(45.8)	161(54.2)	297(100.0)	
출생 순위	장남·장녀	105(45.7)	125(54.3)	230(100.0)	$\chi^2=1.05$ df=2
	차남·차녀	102(47.7)	112(52.3)	214(100.0)	
	외동 자녀	16(39.0)	25(61.0)	41(100.0)	
조부모 동거 경험	유	97(45.5)	116(54.5)	213(100.0)	$\chi^2=0.03$ df=1
	무	126(46.3)	146(53.7)	272(100.0)	
전 체		223(46.0)	262(54.0)	485(100.0)	

성, 출생순위, 조부모 동거여부 등 각 변인에 따라 미혼 성인의 자녀양육신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모두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관계지향적 자녀양육신념보다는 개인지향적 자녀양육신념을 보다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부모 동거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미혼 성인들은 개인주의적 자녀양육신념을 보다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출생순위, 조부모 동거경험여부 등 각 변인에 따라 미혼 성인의 자녀양육신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조부모 동거경험 유무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즉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이 있는 미혼 성인들이 가족내 관계지향, 행복지향 자녀양육신념을 더 많이 지니고 있는 데 비해, 조부모 동거경험이 없는 미혼 성인들은 사회적 관계지향, 인지향적 자녀양육신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조부모 동거경험 유무가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부모 동거경험이 있는 미혼 성인들이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없는 미혼 성인들에 비해 행복지향적인 자녀양육신념보다 독립·자율지향적인 자녀양육신념을 보다 우선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가족주의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 성·출생순위·조부모 동거경험유무에 따른 자녀양육신념 하위영역의 차이 (N=485)

		사회적 관계지향	가족내 관계지향	독립·자 율지향	인지지향	행복지향	계	
성별	남자	76(40.4)	11(5.9)	43(22.9)	22(11.7)	36(19.1)	188(100.0)	$\chi^2=1.07$ df=4
	여자	122(41.1)	14(4.7)	62(20.9)	33(11.1)	66(22.2)	297(100.0)	
출생 순위	장남	89(38.7)	16(7.0)	52(22.6)	25(10.9)	48(20.9)	230(100.0)	$\chi^2=13.21$ df=8
	장녀							
	차남	96(44.9)	6(2.8)	48(22.4)	21(9.8)	43(20.1)	214(100.0)	
	차녀							
조부모 동거 경험	유	83(39.0)	14(6.6)	54(25.4)	15(7.0)	47(22.1)	213(100.0)	$\chi^2=10.59^*$ df=4
	무	115(42.3)	11(4.0)	51(18.8)	40(14.7)	55(20.2)	272(100.0)	
전	체	198(40.8)	25(5.2)	105(21.6)	55(11.3)	102(21.0)	485(100.0)	485(100.0)

\* p<.05

그외에도 여자 대학생과 남자 대학생이 모두 사회적 관계지향 자녀양육신념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었으나, 남자 대학생은 행복지향보다는 독립·자율지향의 자녀양육신념을, 여자 대학생은 이와 반대로 독립·자율지향보다는 행복지향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으로써 차이를 보였다. 출생순위별로 살펴보면,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사회적 관계지향 자녀양육신념을 가장 많이 지닌 것으로 나타났고, 외동자녀가 장남·장녀, 차남·차녀에 비해 행복지향적 자녀양육신념을 보다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 부모 부양의무감의 차이

미혼 성인을 대상으로 성, 출생순위, 부모 동거여부, 부모 접촉빈도, 조부모 동거 경험 유무 등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에서 보듯이 부모와의 접촉빈도( $F=2.96$ ,  $p < .05$ )가 많을수록

록 정서적 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함께 살고 있거나 주1회 이상 방문한 상 집단, 2개월에 1회 이상 방문한 중 집단이 그렇지 않은 하 집단보다 정서적 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 ( $t=12.61, p<.001$ )에 따라서도 정서적 가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미혼 성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서적 가치를 훨씬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가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출생순위( $F=3.54, p<.05$ ), 부모와의 접촉 빈도( $F=3.29, p<.05$ )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동자녀, 장남·장녀보다는 차남·차녀가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접촉 빈도가 주 1회 이상인 상집단이 그렇지 못한 중·하집단에 비해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양육부담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 $t=5.34, p<.05$ ) 남자 대학생보다는 여자 대학생이 자녀양육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녀양육과 관련한 현실적인 책임과 의무감을 여자가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부양의무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6>에서 보듯이 성( $t=6.16, p<.05$ ), 부모 동거여부( $t=7.69, p<.01$ ), 부모와의 접촉빈도( $F=8.71, p<.001$ )에 따라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보다는 남자가 부모 부양의무감을 보다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 부양의무감을 더 많이 인식하였고, 부모와의 접촉빈도가 적은 하집단보다는 2개월에 1회 이상 방문한 중·상집단일수록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감을 보다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출생순위, 조부모 동거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부모 부양의무감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5&gt;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미혼 성인의 자녀에 대한 가치의 차이

	N	미혼 성인의 자녀에 대한 가치								
		정서적 가치			도구적 가치			자녀양육부담감		
		M	SD	t/F	M	SD	t/F	M	SD	t/F
성별										
남자	323	4.20	.58	2.68	3.43	.68	2.65	3.00	.81	5.34*
여자	425	4.26	.47		3.35	.61		3.13	.71	
출생순위										
장남·장녀	358	4.22	.58	1.80	3.34ab	.68	3.54*	3.08	.78	.76
차남·차녀	327	4.28	.45		3.45b	.61		3.09	.73	
외동자녀	63	4.17	.54		3.29a	.56		2.97	.74	
부모동거여부										
예	470	4.26	.50	1.39	3.41	.60	2.31	3.09	.75	.64
아니오	278	4.21	.57		3.34	.71		3.05	.77	
부모접촉빈도										
상	84	4.28b	.39	2.96*	3.50b	.60	3.29*	3.04	.79	1.56
중	134	4.22b	.64		3.25a	.77		3.01	.78	
하	37	4.01a	.62		3.30a	.68		3.26	.65	
조부모동거경험										
예	331	4.32	.48	12.61***	3.40	.63	.33	3.02	.76	3.13
아니오	417	4.18	.55		3.37	.65		3.12	.75	
전체	748	4.24	.52		3.38	.64		3.08	.76	

\*  $p < .05$  \*\*\*  $p < .001$ 

ab: 다른 문자끼리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냄.

&lt;표 6&gt; 미혼 성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부양의무감 차이

사회 인구학적 특성	부모 부양의무감			
	N	M	SD	t/F
성별				
남자	323	4.18	.60	6.16*
여자	425	4.08	.56	
출생순위				
장남·장녀	358	4.10	.56	.68
차남·차녀	327	4.15	.57	
외동자녀	63	4.09	.67	
부모동거여부				
예	470	4.17	.56	7.69**
아니오	278	4.05	.61	
부모접촉빈도				
상	84	4.20b	.55	8.71***
중	134	4.07b	.53	
하	37	3.71a	.84	
조부모동거경험				
예	331	4.15	.57	1.69
아니오	417	4.10	.59	
전체	748	4.12	.58	

\*  $p < .05$  \*\*  $p < .01$  \*\*\*  $p < .001$

ab: 다른 문자끼리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냄.

### 3. 자녀양육신념, 자녀에 대한 가치 및 부모 부양의무감

미혼 성인이 지닌 자녀양육신념에 따라 장래 자신의 자녀에 대한 가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7>에서 보듯이 자녀에 대한 가치 중 정서적 가치의 경우에만 자녀양육신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t=2.49$ ,  $p < .05$ ) 개인지향적 양육신념을 지니고 있는 미혼 성인보다 관계지향적인 양육신념을 지니고 있는 미혼 성인이 정서적 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도구적 가치, 자녀양육부담감에 있어서는 자녀양육신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표 7> 자녀양육신념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의 차이 (N=485)

자녀양육신념	미혼 성인의 자녀에 대한 가치									
	N	정서적 가치			도구적 가치			자녀양육부담감		
		M	SD	t	M	SD	t	M	SD	t
관계지향적	223	4.32	.48	2.49*	3.43	.62	1.69	3.05	.75	-1.11
개인지향적	262	4.20	.56		3.33	.66		3.13	.80	

\*  $p < .05$

<표 8> 자녀양육신념 하위영역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의 차이 (N=485)

자녀양육신념		미혼 성인의 자녀에 대한 가치									
		N	정서적 가치			도구적 가치			자녀양육부담감		
			M	SD	t/F	M	SD	t/F	M	SD	t/F
관계 지향 (223)	사회적관계지향	198	4.31	.46	-1.16	3.40	.62	-1.76	3.06	.76	.44
	가족내관계지향	25	4.43	.59		3.63	.58		2.99	.72	
개인 지향 (262)	독립·자율지향	105	4.14	.61	1.32	3.19a	.60	4.58**	3.07	.78	2.36
	인지지향	55	4.22	.59		3.50b	.78		3.33	.79	
	행복지향	102	4.26	.47		3.38ba	.62		3.07	.81	

\*\*  $p < .01$

ab: 다른 문자끼리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냄.

자녀양육신념 각 하위영역에 따라 미혼 성인의 자녀에 대한 가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8>에서 보듯이 사회적 관계지향보다는 가족내 관계지향의 자녀양육신념을 지닐수록 정서적 가치,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고, 자녀양육부담감은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지향적 자녀양육신념을 지니고 있는 미혼 성인의 경우에는 인지지향, 행복지향, 독립·자율지향의 순으로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4.58, p < .01$ ). 그러나 정서적 가치, 자녀양육부담감의 경우에는 개인지향적 자녀양육신념 각 하위영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9&gt; 자녀양육신념에 따른 부모 부양의무감의 차이 (N=485)

자녀양육신념	부모 부양의무감			
	N	M	SD	t
관계지향적	223	4.20	.55	7.23**
개인지향적	262	4.06	.62	
전 체	485	4.13	.59	

\*\*  $p < .01$ .

장래 자신의 자녀에 대한 양육신념에 따라 부모 부양의무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9>에서 보듯이 관계지향적 자녀양육신념을 지닌 미혼 성인이 개인지향적 양육신념을 지닌 미혼 성인보다 부모 부양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t=7.23$ ,  $p < .01$ ).

&lt;표 10&gt; 자녀양육신념 하위영역에 따른 부모 부양의무감의 차이 (N=485)

자녀양육신념	부모 부양의무감				
	N	M	SD	t/F	
관계지향적	사회적 관계지향	198	4.18	.55	4.39*
	가족내 관계지향	25	4.41	.44	
	전 체	223	4.20	.55	
개인지향적	독립·자율지향	105	3.91a	.66	5.34**
	인지지향	55	4.18b	.53	
	행복지향	102	4.15b	.59	
	전 체	262	4.06	.62	

\*  $p < .05$ . \*\*  $p < .01$ .

ab: 다른 문자끼리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냄.

관계지향적 자녀양육신념, 개인지향적 자녀양육신념별로 각각 자녀양육신념에 따라 미혼 성인의 부모 부양의무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10>에서 보듯이 사회적 관계지향 자녀양육신념보다 가족내 관계지향일수록 부모 부양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t=4.39$ ,  $p < .05$ ), 인지지향, 행복지향, 독립·자율지향의 순으로 부모 부양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5.34$ ,  $p < .01$ ).

&lt;표 11&gt; 자녀에 대한 가치와 부모 부양의무감의 관계

	자녀에 대한 가치		
	정서적 가치	도구적 가치	자녀양육부담감
부모 부양의무감	.44**	.41**	-.42

\*\*  $p < .01$

이와 함께 자녀에 대한 가치와 부모 부양의무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11>에서 보듯이 정서적 가치와 부모 부양의무감의 관계는  $\alpha=.44$  ( $p<.01$ ), 도구적 가치와 부모 부양의무감의 관계는  $\alpha=.41$ ( $p<.01$ )로 나타남으로써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감을 많이 지니고 있는 미혼 성인일수록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녀양육부담감과 부모 부양의무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4년제 남녀공학 대학생(남학생 323명, 여학생 425명, 총 748명)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신념의 양상, 자녀에 대한 가치 및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주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비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양육신념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6.7%)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똑똑한 사람(6.4%), 예의바른 사람(5.9%), 독립적인 사람(5.3%), 사랑을 받고 줄 수 있는 사람(5.3%)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이를 분석해 보면 의사, 연예인, 운동선수 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직종을 언급하기보다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응답이 많았고, 집합주의적인 사고를 반영하는 응답보다는 개인주의적 사고를 반영하는 응답이 많았으며, 가족중심적 사고를 반영하는 응답보다는 사회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응답의 비율이 많았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양육목표를 조사한 White(1996)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들은 안전한, 건강한, 친절한, 정이 많은, 순종하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했고, 교육의 질과 자녀의 안전한 미래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또

한 유아기 자녀를 둔 일본의 중산층 30대 부모 1147쌍을 대상으로 부모의 역할, 자녀양육목표, 아버지의 특성, 자신의 부모에 대한 회상 등을 중심으로 방대한 인터뷰 조사를 수행한 결과(Shwalb, Kawai, Shoji, & Tsunetsugu, 1997)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실제보다는 이상적인 문화적 목표를 나타내는 응답을 보였는데, 부모 모두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양육목표로 '건강한 자녀'와 '사회에 잘 적응하는 자녀'라는 응답을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행복한 자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부모, 특히 어머니들은 관계지향적 양육신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혼 성인의 자녀양육신념을 범주화해 분석한 결과, 성, 출생순위, 조부모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관계지향적 자녀양육신념(46.0%)보다 개인지향적 자녀양육신념(54.0%)을 지닌 미혼성인이 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독립심, 자기의존, 개인의 성취 등 개인지향적인 자녀양육신념을 강조하는 반면에(Triandis, 1995;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아시아 및 라틴계 문화에서는 상호의존성, 협동, 협력 등 관계지향적인 자녀양육신념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조사된 선행 연구결과(Harrison, Wilson, Pine, Chan, & Buriel, 1990)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미혼 성인들은 전통적으로 중시해 오던 집합주의적 가치관보다는 서구사회의 영향에 의해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보다 중시함으로써 자녀양육신념에 있어서도 개인지향적인 신념을 보다 많이 지니게 되었다고 하겠다.

일본과 우리나라 유치원 부모들의 신념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모 모두 자녀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점은 일치했으나,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주적,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는 반면에, 일본의 부모들은 남을 배려하는 점에 가치를 두고 순응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임정미·이명조, 2000),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관계지향적 자녀양육신념보다는 개인지향적 양육신념의 경향이 보다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녀양육신념을 좀더 세분화해 살펴본 결과, 관계지향적 자녀양육신념은 사회적 관계지향(대인관계가 좋은 자녀, 사회에 도움을 주는 자녀, 예의바른 자녀 등)과 가족내 관계지향(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가족과 친밀한 자녀 등)으로, 개인지향적 자녀양육신념은 독립·자율지향(독립적인 자녀, 자립심이 강한 자녀 등), 인지지향(똑똑한 자녀, 공부를 잘하는 자녀 등), 행복지향(행복한 자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자녀 등) 자녀양육신념으로 구분되었다. 사회적 관계지향이 40.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독립·자율지향 21.7%, 행복지

향 21.0%, 인지지향 11.3%, 가족내 관계지향 5.2%의 분포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는 개인지향적 자녀양육신념의 비율이 높았지만, 하위영역별으로는 사회적 관계지향도 중시함으로써 자녀양육에 있어 나타나는 상호의존성·집합주의와 독립성·개인주의라는 문화적 가치체계가 현대의 미혼성인 세대의 의식에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미혼 성인들은 정서적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도구적 가치를, 자녀양육부담감을 가장 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OC 연구의 일환으로 1975년과 1994년, 2000년 중국 베이징의 젊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결과(Arnold, F., Bulatao, R. A., Buripakdi, C., Chung, B. J., Fawcett, J. T., Iritani, T., Lee, S. J., & Wu, T. S., 1975)에서는 자녀를 갖는 것이 기쁨을 준다는 정서적 가치는 68.6%에서 77.2%로, 이후 83.9%로 변화했고, 자녀를 갖는 것이 가족 결속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응답이 44.8%에서 55.7%, 그리고 80%로 변화를 보인 반면에 경제적 유용성은 44.4%에서 41.8%, 이후 3.6%로 감소했는데, 즉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경제적, 도구적 가치에 비해 정서적 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결과와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자녀에 대한 가치 중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가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2개월에 1회 이상 부모를 방문한 집단일수록, 즉 부모와의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미혼 성인일수록 정서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성별,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서는 정서적 가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성별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를 살펴본 Hoffman과 Manis(1979)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자녀의 애정적, 정서적 가치를 보다 더 중시한다고 하였고, Callan(1980)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고, 아버지는 자녀를 보다 더 생활의 목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도구적 가치의 경우에는 외동자녀, 장남·장녀보다는 차남·차녀가, 그리고 부모와의 접촉 빈도가 주 1회 이상인 집단일수록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양육부담감의 경우에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자녀양육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자녀양육의 주된 책임을 어머니가 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넷째, 미혼 성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부양의무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자보다는 남자가,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 부양의무감을 더 많이 인식하였고, 부모와의 접촉빈도가 2개월에 1회 이상일 수록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감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가 있는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Finley, Robert와 Banahan(1988)은 부양의무감은 물리적 근접성과 역할 갈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즉 어머니와 멀리 살수록 부양의무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밝혀내었다. 그런데 이는 부양의무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먼 곳에 거주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양의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성에게는 애정적인 요인은 중요하지 않았고 물리적 거리만이 유의했던 반면에, 여성에게는 애정적인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부양의무감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일치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부모 부양의무감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자녀에 대한 가치와 부모 부양의무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지닌 미혼 성인일수록 부모 부양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부모 부양의무감에 정서적 가치가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신념에 따른 미혼 성인의 자녀에 대한 가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개인지향적 자녀양육신념을 지니고 있는 미혼 성인보다는 관계지향적인 자녀양육신념을 지니고 있는 미혼 성인이 정서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지향적 자녀양육신념을 지니고 있는 미혼 성인의 경우에는 인지지향, 행복지향, 독립·자율지향의 순으로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정서적 가치, 자녀양육부담감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신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녀양육신념에 따른 미혼 성인의 부모 부양의무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관계지향적 자녀양육신념을 지닌 미혼 성인이 개인지향적 자녀양육신념을 지닌 미혼 성인보다 부모 부양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내 관계지향적일수록 부모 부양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지향, 행복지향, 독립·자율지향의 순으로 부모 부양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관계를 중시하고, 효의식에 의한 부모부양의식이 높을수록 부양의무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박성수, 1999)와 일치하며, 부양의무감을 많이 느낄수록, 부모와 애착이 강하고 정서적 유대가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부양의무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조운주, 2002)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대상은 특정지역의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화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질문지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심층적인 탐구가 이루어

어지지 못하였다는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급격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한 서구가치의 무분별한 도입 속에서 한국사회의 올바른 자녀양육신념 및 부모부양의식이 정립되어야 할 시점에서 현대의 미혼 성인들이 지닌 자녀양육신념의 일반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자녀에 대한 가치와 부모 부양의무감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미래의 부모들에게 부모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수립하도록 돕고 예비부모 교육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한국적 자녀양육신념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 본다.

## 참 고 문 헌

- 권용민(2003). 자녀에 대한 가치에 대한 세대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미정(2001). 어머니의 양육가치, 양육목표, 양육신념 및 조정행동과 유아의 순응행동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송애(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기혼 여성의 시가와 친가에 대한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성수(1999). 노인부양형태와 부양의식에 대한 연령별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옥분 · 김광웅 · 김동춘 · 유가효 · 윤종희 · 정현희 · 최경순 · 최영희(1997). 한국인의 효 인식 및 실천 정도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387-403.
- 조윤주(2002).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 갈등 및 부양의무감과 부모부양의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허정무(1999). *미혼독신주의와 노부모세대*. 창원: 협신사. pp.3-7.
- Arnold, F., Bulatao, R. A., Buripakdi, C., Chung, B. J., Fawcett, J. T., Iritani, T., Lee, S. J., & Wu, T. S. (1975). *Value of children Vol. 5*.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 Brody, E. M., Johnson, P. T., Fulcomer, M. C., & Lang, A. M. (1983). Women's changing roles and help to elderly parents: Attitudes of three generations of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35, 597-607.
- Cicirelli, V. G. (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s to elderly parents: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815-822.
- Goodnow, J. J. (1984). Parents' ideas about parenting and development: A review of issues and recent work. In M. E. Lamb, A. Brown, & B. Rogoff(Ed),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3, 193-242. Hillsdale, N.J.: Erlbaum.
-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Hansen, S. L., Sauer, W. J. & Seelbach, W. C. (1983). Racial and cohort variations in filial responsibility norms. *The Gerontologist*, 23(6), 626-631.

- Jarrett, W. H. (1985). Caregiving within kinship systems: Is affection really necessary? *The Gerontologist*, 25, 5-10.
- Johnson, J. E., & Martin, C. (1983). Family environments and kindergarten children's academic knowledg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Northeaster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Ellenville, New York.
- Kinard M. E., & Klerman, L. (1980). Teenage parenting and child abuse: Are they relate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0(3), 481.
- Kirchner, E. P., & Seaver, B. (1997). Developing measures of parenthood motivation.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Institute for Research on Human Resources.
- Kivett, V. R. (1988). Older rural fathers and sons: Patterns of association and helping. *Family Relations*, 37, 62-67.
- Larsen, J. J., & Juhasz, A. J. (1986). The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Adolescence*, 21(81), 39-54.
- LeVine, R. (1988). Human parental care: Universal goals, cultural strategies, individual behavior. In R. LeVine, P. Miller, and M. West(Eds.), *Parental behavior in diverse societi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Inc., Publishers, 3-12.
- Lupton, D., & Barcaly, L. (1997). *Constructing fatherhood: Discourses and experiences*. London: Sage.
- Macphee, D. (1984). The Pediatrician as a source of information about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9(1), 87-100.
- McGillicudy-Delisi, A. V. (1982). Parental beliefs about developmental processes. *Human Development*, 25, 192-200.
- McGillicudy-Delisi, A. V.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pp. 7-24). Hillsdale, NJ: Erlbaum.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Nock, S. L. (1987). The symbolic meaning of childbearing. *Journal of Family Issues*, 8(4), 373-392.
- Okagaki, L. & Sternberg, R.J.(1993).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 36-56.



- Schaefer, E. S. (1991). Goals for parent and future parent education: Research on parental beliefs and behavior. *Elementary School Journal, 91*, 239-247.
- Seelbach, W. C., & Sauer, W. J. (1977).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s and morale among aged parents. *The Gerontologist, 17*, 492-499.
- Shwalb, D. W., Kawai, H., Shoji, J., & Tsunetsugu, K. (1997). The middle class Japanese father: A study of parents of preschooler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8*, 497-511.
- Sigel, I. E.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distancing strategies and the child's cognitive behavior. In L. M. Laosa & I. E. Sigel (Ed.), *Families as learning environments for children* (pp. 47-86). New York: Plenum.
- Sigel, I. E. (1992). The belief-behavior connection: A resolvable dilemma? In I.E. Sigel, A.V. McGillicuddy-DeLisi & J.J. Goodnow(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2nd ed.*(pp. 433-456).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ilverman, A., & Silverman A. (1977). *The case against having children*. New York: David Mckay.
- Stevens, J. H., Jr. (1984). Child development knowledge and parenting skill, *Family Relations, 33*, 237-244.
- Sung, K. T. (1995). Measures and dimensions of filial piety in Korea. *The Gerontologist, 35*(2), 240-247.
- Trommsdorff, G. (2001). Value of children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A cross-cultural psychological study. Retrieved March 25, 2002, from University of Konstanz, Department of Psychology, Work Area Developmental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website: [http:// www.uni-konstanz.de/developmental-psychology/vocpsychologieaspects.pdf](http://www.uni-konstanz.de/developmental-psychology/vocpsychologieaspects.pdf).
- White, M. (1996). Renewing the new middle class: Japan's next families. In D. Shwalb & B. Scwalb(Eds.), *Japanese childrearing: Two generations of scholarship*(pp. 208-219). New York: Guilford Press.
- Wolfson, C., Handfield-Jones, R., Glatz, K. C., McClaran, J., & Keyserlingk, E. (1993). Adult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responsibility to provide care for dependent elderly parents. *The Gerontologist, 33*(3), 315-323.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parental beliefs, value of children, and filial obligation were related. The subjects were 748 students(male 323, female 425) who were currently enrolled at university located in Seoul.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Filial Obligation Scale(Cho, 2002), Parenting Beliefs Questionnaire, and Value of Children by Arnold et al.(1975, 2001).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s by SPSS PC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university students generally demonstrated a higher level of individual-oriented beliefs than relation-oriented beliefs on parental beliefs. With regard to parental beliefs, family relation-oriented beliefs was relatively low in comparison with independence/autonomy-oriented beliefs, happiness-oriented beliefs, and cognition/knowledge-oriented beliefs. In addition, emotional value of children was relatively high in comparison with instrumental value of children. Also, male university students possessed a higher level of filial obligation. the level of cohabitation experience with their parent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affecting the level of filial obligation. Unsurprisingly, a higher relation-oriented parental beliefs and emotional value of children demonstrated a higher level of filial obligation. There were also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value, instrumental value, and filial obligation. H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a practical, functional training services and resources for future parents must be ensued.

**Key words** : parental beliefs, value of children, filial obligation

---

2007. 6. 13. 접수 : 2007. 10. 30. 채택